

2024. 3. 4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

한성백제박물관장	김 지 연	2152-5801
총무과장	박 양 규	2152-5810
관련 누리집 (한성백제박물관)	<a href="https://baekjemuseum.seoul.go.kr/">https://baekjemuseum.seoul.go.kr/</a>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## 고대 백제인의 집터, 더 생생하게 더 쾌적하게 만난다 한성백제박물관 <백제 집자리 전시관> 전면 개편 추진

-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몽촌토성 내 유구보호각 발굴 및 보존 사업 추진
- 발굴 유적 전시관인 '백제집자리전시관', 개관 후 30년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·전면 개편 추진
- '실감형 전시 콘텐츠' 활용, 생생한 체험과 힐링이 가능한 전시관으로 조성
- 본격 개편 위해 '24.3.~'25.6.까지 휴관... '25.7. 개관 예정

-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김지연)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'백제집자리 유구보호각 문화유산 발굴 및 전시실 개편 사업'을 추진한다. 이번 사업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백제 한성도읍기의 주거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, 시민들의 쾌적한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.
  - '유구보호각'은 건물터, 집자리, 무덤 등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, 유구를 통해 과거의 건축양식, 의례생활, 사회조직 및 경제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.
- 백제 한성도읍기의 왕도유적 중 하나인 몽촌토성을 발굴조사 한 결과, 지상 건물터 4곳, 구덩식 집자리 12개, 저장구덩이 30여 개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4개의 집자리를 백제 집자리 전시관이 보존·전시하고 있다. 1993년

7월 개관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미관이 훼손되는 등 전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. 한성백제박물관은 이번 백제집자리전시관의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.

-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시관 내외부 개선 및 외부 진입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전시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는 것이다.
  - 먼저 전시관 내부에 편의시설(▲화장실 ▲휴게공간 ▲배움터 ▲디지털 이미지)을 신규 조성한다.
  
- 또한, 전시 콘텐츠도 ‘실감형 콘텐츠’를 활용하여 전면 개편에 나선다. ▲증강 현실(AR) 모니터 ▲미디어 월 ▲프로젝션 맵핑 ▲미디어 풀 등의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백제인들이 직접 거주했던 ‘집자리’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  - 관람객들은 다양한 영상 및 음향 장치 등을 활용한 실감나는 ‘참여형 전시물’을 통해 백제집자리 부지 발굴조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, 백제인의 생활은 어땠는지, 집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등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게 된다.
  
- 이번 개편을 위해 백제집자리전시관을 '24년 3월부터 '25년 6월까지 휴관하고, 개편을 마친 뒤 '25년 7월 재개관하여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.
  
-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이번 ‘백제집자리전시관’ 전면 개편은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백제의 흔적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시민들이 ‘2천년 역사도시 서울’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: 현 시설 사진 및 조감도



【 야외공간, 건물 】



【 시설 외부(조감도) 】



【 실내공간, 집자리 】



【 시설 내부(조감도) 】